

애정을 갖고 닭과 대화를

— 신기농장을 찾아서 —

〈취재부〉

평택에서 6km 떨어진 이 곳은 주변이 낮으막한 야산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구룡위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가 멀지 않다. — 경기도 안성군 원성군 원곡면 죽백리.

이곳에 자리잡고 있는 신기 하바드 원종농장은 (대표: 이상윤) 16,000평의 토지에 4동의 계사, 채소밭, 배나무, 과수원으로 전형적인 전원 풍경으로 한 폭의 그림처럼 보여진다.

마침 서울로 올라가려고 문을 나서는 이상윤 사장과 만났다.

무척 피로한 기색이다.

……몸이 아파 3일간 꼬박 눕었더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이……

예의 그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가 약간 지쳐 있다

감기와 설사가 겹쳐 보리차만 마셔 기력이 없으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경영자로서의 고충과 애로가 실감있게 느껴진다.

출입문 밖에서 눈이 부시게 깨끗한 흰 고무신으로 바뀌신고 사무실을 들어서니 분무소독기로 온몸을 훑는다. 메모 수첩까지 빼앗아 소독기에 갖다대는 극성(?)이다.

다시 상하의 모두 하얀 까운으로 갈아 입고 장화를 신고 농장안을 돌아보았다.

방역은 경영 전선의 최전방 참호

사료차출입, 사람출입, 병아리출하하는 문이 따로 있다.

사료로 감염되는 질병을 막기 위하여 사료차가 들어오면 농장종업원이 직접 트럭위에 올라서 사료를 내려 리어카로 반입하게 하므로서 가능한한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다는 공원식 농장장의 설명이다

정문에서 계사까지 가는 동안 다섯개의 소독관을 밟았다.

방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실감한다. 역시 방역은 경영전선의 최전방 참호인가 보다

125평짜리(길이 150자, 폭 30자) 콘크리트 계사가 4동, 그 옆에 또하나의 계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있다.

孔농장장은 계사안의 출입은 삼가하고 밖에서만 들여다 볼 것은 부탁한다. 사료를 급여하는 종업원은 계사입구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들어가는 습관이 붙었다고한다. 7명의 종업원들에게 철저한 위생관념과 이러한 방역의식을 습관화시키기에는 일방적인 지시만으로는 어렵고 솔선수범이 뒤따라야한다는 이 상윤씨의 말이다. 중앙 스노코형(Slatted floor) 평사에는 원통형자동 급이기(hopper style)가 끈에 매달려있다. 계사 가운데 목재 스노코 밑은 땅바닥에서 높이가 2m로서 제분청소작업은 1년에 한번 실시하고 모타에 의한 환기장치로 개스나 악취가 계사내로 올라오지않도록 되어있다 현재 암탉 100마리에 수탉 12마리의 비율로 넣고 있다고 한다. 계사 1동을 3구분하고 있



〈신기농장 대표 이상윤(우)와 농장장 공완식씨(좌)〉

으며 1 구에 270~280마리의 닭이 걸러지고있다. 한 계사내에 산란상자 33개 모이통은 1 구분에 40개, 깨끗한 물을 급수하기위해 항상 흐르도록 되어있다. 사료는 1 일 2 회 급여하는데 1 일급여량의 2/3은 오전에, 1/3은오후에 급여한다고 한다. 산란상자는 바닥에서 20cm 높이로 설치 되어있다.

겨울에는 비닐로 이중으로 덮어 아무리 추워도 영상 3℃이하로 계사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

철저한 방역때문에 고독감이커

계사를 돌아 본후 부화실로 가는 도중에 공완식 농장장에게 애로사항을 물었다.

……철저한 방역을 기하느라고 저 자신은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전 종업원의 외출을 금하고 외부인의 방문도 통제하므로써 외부세계와 단절되기 때문에 느끼는 심한 고독감과 소외감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업원들의 심리적인 욕구불만과 단절감을 해소하는데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예요.

저 역시 평소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친지들을 문밖에서 되돌려 보내거나 인근 주민들과의 왕래, 대화를 회피하므로써 받게되는 오해와 불화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모두들 실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부화기 6대가 설치된 부화실은 이중벽으로 되어있어 외부기온의 영향을 차단시키도록 되어있다.

산란된 종란은 소독실에서 1시간동안 포르말린 소독을 실시한 후 저란실로 옮겨진다. 저란실은 에어컨을 이용, 실내온도 14℃~16℃,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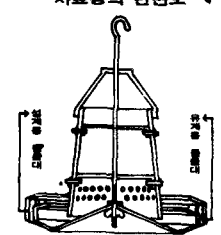
平飼養鷄의 必需品

自動모이통 自動물통을 권합니다.

초생후용 물통(42)



사료통의 단면도



특 징

- 1 병아리로부터 성계에 이르기 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2 주령에 맞추어 맞는 때를 알아 끼움으로 사료를 빠져 내지 못한다
- 3 통자체의 회전기능이 가능하여 먹는데로 내려온다
- 4 구멍이 좁혀 통풍이 잘피므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 5 부라스틱제품으로 녹이 슬지 않는다.
- 6 가격이 저렴하다.

동 신 사

주 소 : 인천시 남구 주안동 326 Tel. 인천 8 0235 (주원한국벽돌업
 제품취급소 : 서울 중로구 효제동 27 5호 29 2013 30 9461 대계구차 서울 51552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2 10 동남축산 64 4018

초생후~성계용 모이통

도 70%를 유지시켜준다. 그리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리고 수반에 물을 채워둔다.

……부화실내의 모든 기계작동과 상태를 4시간마다 체크합니다

이것 역시 쉽고도 어려운 것이 점 책임자도 사람인지라 평소예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우 사고가 생기면 큰 손실은 물론 전반적인 부화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고객에 대한 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예전에 경험한 바 있기때문에 아예 제가 직접 부화실을 점검합니다……

사양가 자신이 굵는다는 기분으로 강제 환우를

강제 환우할 때 제한급이는 어느 정도이고 산란율은 얼마나 됩니까?

— 최근에 실시한 강제환우때 평균 30일 간의 제한급이를 실시했습니다. 완전히 사료급여를 중단한 기간이 평균 15일(긴 것은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에 산란을 시작하도록 했죠, 폐사가 거의 없고 산란율도 P. S에 못지 않습니다.

이상윤씨는 …이것은 평소의 사양관리가 완전하므로써 닭들이 균일하게 건강을 유지할 때만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강제환우시기중에는 사양관리가 편하다는 일부 사양

가들의 얘기는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강제환우 중에는 사양가 자신이 굵는다는 기분으로 닭들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가며 그중 약한 놈들은 따로 골라내어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 애정과 세밀한 주의로서 관리할때 만이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지요……라고 강조한다.

또한 사료도 오랫동안 저장을 하므로써 생길지도 모르는 사료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에는 10일, 여름철에는 7일간 급여할 만큼의 량을 주문한다고 한다.

—첨가제사용은 어떻게습니까?

—사료에 비타민제를 따로 첨가하는데 반드시 단일 비타민제를 사용해요, 복합비타민제제는 보통 항생제가 섞여 있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따로 항생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투약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옷을 갈아 입었다 시원한 쥬스로 땀을 식히며 신기농장의 발전과정을 더듬어 봤다. 당시 대구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던 이상윤씨의 부친 이길우씨가 1950년부터 과수원 한구석에 계사를 짓고 부업규모의 양계를 시작한 후 1966년 부터 부화업으로 사업을 확대 (이때는 성환계와 뉴햄프셔 계통을 부화), 1967년 미국에서 제리션섹스링크PS

양돈업계의 필수품

방돈용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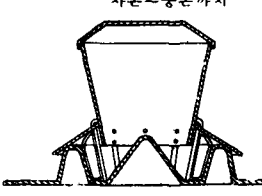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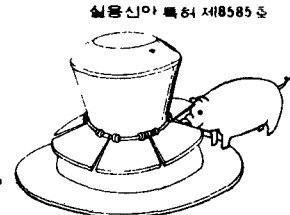
(사료의 손실)
 여러분은 (위생적 관리) 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인건비 절감)

여기 문제를 해결해 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 1 먹이통이 움직이지 않으며 사료가 밖으로 흘러져 나가지 않습니다
- 2 사료통이 넘어지지 않으며 쥐나 새가 담벼룩지 못합니다
- 3 돼지가 스스로 문을 열고 먹이를 먹고 나서면 문이 원위치로 닫힙니다
- 4 돼지가 발을 들어놓지 못하므로 항상 깨끗한 사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 5 단 1회 공급으로 하루종일 먹을 수 있어오니 인건비가 절약됩니다
- 6 프라스틱 제품이오니 오염에 썩지 않으니 반영구적입니다

용법 및 용량 :

35kg~40kg 인
 18수~20수용
 자돈~중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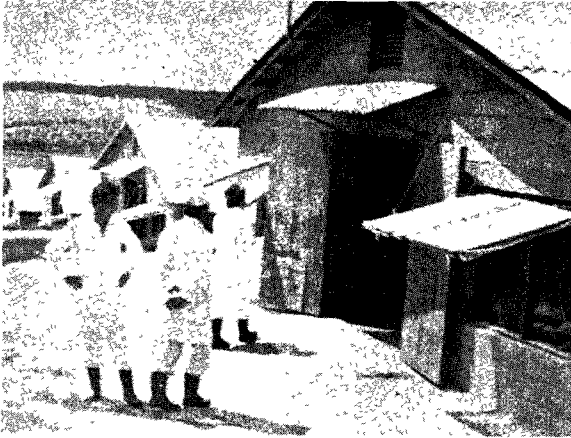



단 면 도 참 고 도 (사용상태사시도)

시호시아원 7527
 -호신곡년 5324
 의창등록일 5359
 의창특허 제9688호
 실용신안 특허 제8585호

동 신 사

주 소 인천시 남구 간석동 755-3 Tel (인천) 8-0235 (주원한국축산물)
 제품위급소 서울 종로구 효제동 27-5호 대체구좌 515528 29-2013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2-10 64-4018



〈중계의 체중조절이 성패를 좌우한다. 사진은 계사의 일부〉

2,000수를 도입하므로써 본격적으로 중계사업에 착수하여 이상윤씨는 바쁘게 뛰기 시작했다고.

농장별로 독립채산제를

그리하여 1968년에 하바드 산란계 P.S골덴 코메트 2,000수 도입, 1969년 하바드 브로일러 P.S 2,000수 도입, 1975년 8월 하바드 G.P.S 3,000수 도입,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72년도 대전에도 농장을 설치하였다.

현재 대구 제1농장에 P.S가 2만수 제2공장에 2만수 있으며 제3농장을 신축중이라고 한다. 현재 대구와 평택농장은 독립채산제로 경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 농장별로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므로써 정확하게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미비점을 진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상윤씨는 마침 서울에 불일이 있다기에 서울을 향해 달리는 차속에서 얘기를 계속 나눴다.

—이렇게 신기농장이 발전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아울러 남다른 경영비결이 있음직 한데요.

닭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

—첫째로 자신이 기르고 있는 닭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 중요함니다.

실감이 안날지 모르지만 영리성(營利性)과는 무관한 그런 애정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닭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되고 대화를 나눌수 있게 되요.

또한 이런 생각을 평소에 농장관리인들에게 주시킵니다.

둘째로 이러한 애정을 바탕으로 했을때 그 다음에 사양, 질병위생등이문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계업은 외국의 새로운 사양기술을 도입 우리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것이 평소에 중계의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계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하바드는 발육성장도가 높아제한급이에 주력을 합니다. 보통 표준치에 약간 미달되게 급여합니다.

셋째로 이러한 사양관리외에 성실한 경영을 위해 고객들에게 꾸준한 신용을 지키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습니까?

—일반 양계장과 달리 GPS농장의 특수성때문에 출퇴근도 없고 출입도 제한되는 부자유한 상태에서 일하는 관리인들의 불만과 고충을 알기에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의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중계는 제한된 숫자이므로 수요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점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닭에게 애정을 주고 대화를 나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수 있는 사양가가 되기까지의 어려움과 난관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것 같다. (浩)